

12월 5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0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車-고용-소비 약재 만 발` 뉴욕 사흘만에 하 락 [다우: 8,376.24pt (-2.51%)]	4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사흘만에 하락세로 마쳤다. 주요 지수는 일제히 3%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하락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수차례 보합권까지 오르며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쏟아지는 약재에 떠밀려 장막판 가파르게 미끄러졌음. 미국 자동차 `빅3`에 대한 의회의 구제금융 지원이 난항을 겪으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결과. `빅3` 경영진들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불투명하다`고 호소했으나 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했음.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의 합의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음.
[WTI: \$43.67 (-\$3.12)]	국제 유가가 7% 가까이 추가 급락하며 43달러대로 떨어졌음. 이는 지난 2005년 1월 이후 최저가로서 유가는 닷새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음.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 우려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됐음.
빅3 `급락`..구제금융 지원 `난항`	GM이 16.1%, 포드(F)가 6.7% 각각 떨어졌음.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 자동차 `빅3`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340억달러의 구제금융 없이는 생존이 불투명하다"고 호소함. 특히 GM은 당장 40억달러, 다음달까지 4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이 시급하다고 간청했음. 그러나 의원들이 보다 강력한 지원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냉랭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내주 예정된 표결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11월 소매유통 사상최 약	국제쇼핑센터위원회(ICSC)에 따르면 미국의 37개 주요 소매 유통업체들의 11월 동일점포매출은 2.7% 감소했음. 이같은 감소폭은 집계가 시작된 35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전망치인 1%도 웃돈 것임.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 구 `예상밖 감소`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 밖의 감소세를 나타냈음.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29일 마감기준)가 전주대비 2만 1,000명 감소한 50만 9,000명(계절조정)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4주래 가장 적은 수치임. 마켓워치의 집계에 따르면 월가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5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었음.
공장주문 5.1%↓ `8년 최대폭`	공장주문은 8년만에 최대폭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글로벌 경기후퇴로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상무부는 10월 공장주문이 전월대비 5.1% 줄었다고 밝혔고, 이같은 감소폭은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액션 이코노믹스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5%를 소폭 웃돈 수준임.

제목	주요 내용
농협, 고강도 구조조정 추진	농협은 4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지주회사제 도입을 통해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인적 쇄신을 병행하는 한편 불유불급한 자산매각, 유통 등에서 유사업종 자회사 통합 등의 작업을 추진하는 것.
두산, 주류사업 접는다	두산그룹이 15년만에 소주사업을 매각함. 나아가 주류산업을 완전히 정리할 계획. 이는 두산이 부품소재와 신기술 중심으로 사업군을 전환하면서 소비재 산업은 모두 정리하기로 함. 매각금액은 6,000 ~ 7,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건설사 신용등급 무더기 하향 압박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이 조만간 상당수 건설업체들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하향 조정할 전망. 이는 현재 건설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이며,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됨.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음.
중(中) "위안화 평가절하"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부진의 비상등이 켜진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움직임 보임. 중국 인민은행은 4일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약간 하락한 1달러당 6.8502위안으로 고시. 하지만 환율은 장중 거래에서 변동제한 폭(±0.5%)인 6.8845위안까지 치솟으면서 외환 거래가 중단.
ECB, 기준금리 0.75%p 인하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4일 일제히 금리를 대폭 인하.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도 기준금리를 3%에서 57년 만에 최저인 2%로 1%포인트 인하.
나라마다 '경제구하기' 각양각색	독일의 집권 연정 사민당은 전국민에게 소비재를 살 수 있는 쿠폰(바우처) 지급을 제안. 프랑스는 중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국민에게 1천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 일본의 아소 다로 내각은 국민 1인당 1만2천~2만엔씩 분배하겠다고 발표. 중국 정부는 수억명의 농민이 4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가전하향' 정책을 1일 발표.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